

日 이중플레이에... 文 대통령, 일본방문 무산 가능성 커져

靑, 지난달 訪日 '열린자세' 강조
'독도 일본 영토' 방위백서 발표에
청와대·문 대통령, 불쾌감 표해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계기 일본 방문 무산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일본 정부의 문 대통령 방일 관련 '여론전'에 청와대와 정부가 불편한 입장을 내비치면서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문 대통령 방일 관련 실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이중플레이' 태도다. 문 대통령이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 계기로 일본에 방문하는 아이디어가 나온 지난달만 해도 청와대는 '열린 자세'를 강조했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지난달 2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한국은 일본과의 대화에 열린 자세로 임해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다"며 "이번 동경올림픽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계기 일본 방문 무산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왼쪽),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뉴스

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에서 열리는 대회고 작년에 한 차례 연기가 됐지 않았다. 그래서 더 의미가 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반도체 산업 관련 일본의 수출 규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풀어나가야 하는 상

황에 직면한 가운데 제기된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청와대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 주요 언론은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져도 15분 약속 형태가 될 것', '반일(反日) 자세를 고치지 않는 문 대통령과 회담이 의미 있다' 등 부정적인 메시지를 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13일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의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사실상 일본에서 협상 분위기에 찬물 끼얹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내는 분위기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는 일본 측의 태도에 불편한 입장을 표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양국 협의 내용이 최근 일본 당국자 등을 인용해 일본의 입장과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언론에 유출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난 12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 관련 기자들 질문에 "최근 일본 언론 보도를 볼 때 정상회담의 올림픽 개막식 참석, 한·일 관계 개선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듯한 인상이 있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 측의 '이중플레이'를 경계한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도 최근 일본 측 태도에 불쾌함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핵심 실세이자 대표적인 지한파 정치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지난 14일 도쿄올림픽 개최식 때 문 대통령의 방일을 요청했다. 이에 청와대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당시 니카이 간사장은 김진표 회장 등 한일의원연맹 회장단과 만난 가운데 "올림픽 개최식 때 꼭 대통령이 일본에 와 달라고 전해 달라. 환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니카이 간사장의 요청과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15일 본지와 통화한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자민당 간사장의 요청과 별개로) 양국 간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성과 없는 회담'은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에 일본 측 태도 변화가 없으면 문 대통령의 방일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산업부, 상반기 車 수출액 7년만에 최고치

친환경차 판매호조 등 성과

올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친환경차 판매호조에 힘입어 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급차질에 따른 일부 생산차질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 수출실적을 훌쩍 넘어섰다. 다만, 내수 판매는 역기저효과로 소폭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자동차산업 동향(잠정)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출은 104만9658대로 전년동기 대비 27.9% 증가했고, 수출금액은 44.9% 증가한 236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 대수는 2012년 상반기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플러스를 기록했고, 수출금액은 236억1000만달러로 2014년 상반기(252.3억달러) 이후 최고 실적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8.9%를 상회했다.

또 SUV가 28.3% 증가했고, 트레일

블레이저, 스포티지, 코나 등 소형 SUV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수출 주력 품목이 SUV나 친환경차로 전환되며 수출 품목 구조의 고도화가 수출단가 상승을 견인했다.

친환경차는 내수(68.9% ↑, 15만 7567대), 수출(37.1% ↑, 17만 2921대) 모두 반기 최대 판매를 달성했고, 수출액은 50억달러를 돌파했다. 친환경차 내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판매비중이 전체 대비 17.3%까지 올랐다. 전기·수소차 등 전 차종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증가세를 시현했고, 올해 상반기 월간 판매대수 기준으로 전기차는 6월 1만대, 수소차는 4월에 1000대를 돌파하며 월간 최대 판매대수를 경신했다. 생산은 부품 수급차질에도 불구하고 아이오닉5 EV, K8, 투싼 HEV, 스타리아 등 신차 출시와 수출 호조 등으로 11.5% 증가한 181만4510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최재형, 국민의힘 입당... 尹, 입지 좁아지나

<전 감사원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이 고통받는 현실 아래 '정권교체' 중심 국민의힘 돼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운행하는 '2번 버스'에 탑승했다.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뒤 고심 끝에 지난 12일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 나흘 만이다. 최재형 전 원장이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당밖에서 외연 확장 시도를 하는 윤석열 전 총장의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준석 대표와 만난 뒤 입당을 결정했다. 그는 국민의힘 입당 이유에 대해 "정치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이라며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맘을 먹은 이상, 밖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정당에 들어가서 함께 정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지금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 아래,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 교체에 이르는 중심은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나라가 너무 분열돼 있다. 여러 가지 정책이 선한 뜻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며 정권 교체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정권 교체 이후 정치에 대해 "특별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이제는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한 나라 만드는데 앞으로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 출신이 야권 후보로 대선 경선에 직행하는 것에 대



대선 유력 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오전 국민의힘에 평당원으로 전직 입당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당환영식에서 입당신청 완료를 알리는 최 전 감사원장의 스마트폰 화면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

한 중립성 논란과 관련 "퇴임의 변에서 말한 것처럼 저에 관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제가 도저히 감사원장직을 수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 전 총장과 차별성에 대해 "저는 지금까지 다른 분들의 어떤 행동이 나선택, 이런 것에 따라 저의 행보를 결정해오지 않았다"며 발언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최 전 원장의 입당에 당 지도부가 총출동하며 반겼다.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최 전 원장 입당식에는 이 대표뿐 아니라 김기현 원내대표, 김재원·정미경·김용태 최고위원과 함께 박진·권영세 의원 등 중진 등이 함께했다.

이 대표는 최 전 원장의 입당 선언 후 "우리 당을 정권 교체 주체로 언급해주시고 참여해 힘을 보태겠다고 한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힌다"라며 "젊은 세대와 국민의 삶을 보듬을 수 있는 전략과 정책으로 정권 교체를 꼭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이 윤 전 총장에 앞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과 관련 신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5일 본지와 통화

에서 "윤 전 총장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중도 확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자기편을 확실하게 만들고 외연 확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 전 원장처럼 보수로 가서 외연 확장을 할 순 있지만 윤 전 총장은 확고한 지지층도 없기 때문에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신윤 교수는 "윤 전 총장이 이 대표가 선출됐을 즈음 입당했으면 시너지 효과가 났을 텐데 타이밍을 놓쳤다. 지금 입당한다고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왜 안 들어오냐'가 아니라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라'가 돼버린다"며 정치 행보에서 승부수를 던지지 못한 부분도 평가했다.

최 전 원장이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뒤 17일 만에 국민의힘 입당 결정 배경에 야권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 전 총장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와 관련 최 전 원장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선캠프 내 대변인을 두지 않는 데 대해 "대변인의 입을 통해 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이 최 전 원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미생물 활용 '온실가스' 저감 해법 찾았다

국립생물자원관, 메탄 등 분해 확인

미생물의 분해 능력을 활용해 메탄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국내의 연구진을 통해 밝혀졌다.

15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충북대 이성근 교수, 캘거리 대학 피터 던필드 교수 등 국내외 공동 연구진은 이탈리아 유황온천에서 확보한 미생물인 메틸아시디필룸(Methylococcus diphilum IT6)이 메탄과 에탄, 프로판을 동시에 분해하는 것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극한환경에 적응해 생육하는 극한 미생물이 메탄 외 다른 천연가스 성분을 분해한다는 사실은 보고된 적 없다.

연구진은 극한 미생물이 입자상 메탄산화효소 및 이와 유사한 동종효소들을 갖고 있고, 이를 이용해 메탄, 에탄, 프로판을 완전히 분해하는 것을 검증했다.

생물자원관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메탄산화효소와 유사한 동종효소들의 새로운 기질 특이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해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생물학적 촉매 자원에 대한 단서를 찾아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온실가스 저감뿐만 아니라 주요 천연가스 성분들을 유용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의 토대가 되는 정보를 확보해 환경 보전과 자원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